



# 전기설계협의회 마 광 민 신임의장 인터뷰



마 광 민 협회회의장(No. 28728)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전기공학) 석사
- (주)에스엠티이씨 대표이사/기술사
- 現 협회 법·제도위원회 부위원장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Q** 전기설계업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업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 전기설계업계는 아파트에 대한 과잉공급 규제로 전체적인 설계발주 물량이 줄고 설계업역 간 과다경쟁으로 설계비가 내려간데 이어 건설경기 악화로 시행사, 건설회사의 부도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하여 우리 설계업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제도적인 정비와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분리발주” 정착과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대금 수급 난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며, 국민의식 전환과 관련해서는 설계를 공사의 부수적인 업무로 인식하여 “공것”이라는 국민정서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전력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업역을 더 크고 더 멀리 바라보며,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협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Q** 설비의 융·복합 등으로 건축물내 설비에 대한 업역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광민 의장님께서서는 우리 설계업역의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설비별 융·복합화는 시대적 추세이며, 인텔리전트 빌딩, U-city,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전기와 통신

설비는 경계를 정확히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합 설비”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건축물 내 전기와 통신이 융합된 설비에 대하여는 우리 전기설계업역에서 수행해 왔고 지금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공사법정이 개정과정에서 그 동안 정보통신업체들이 수행할 수 없었던 건축물 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정보통신 용역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설계업역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설계”란 공사(「건축사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등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을 말한다.

현재 정보통신공사법령의 관련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업체들은 전기와 통신이 융·복합화된 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설비 모두에 대하여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건축물 내

전기와 통신이 융합된 통합설비의 설계업무를 수행해온 전기설계업체를 인정 하지 않고 그들 업역 이기심으로 정보통신업체만 건축물 내의 통신설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업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동안 건축물내 통신설비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사정시키는 것인 동시에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여 온 기술자에 대한 경력인정 등 국가적인 낭비와 시스템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계협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전력 기술인협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전기설계업역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설계업역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설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작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라는 사전적 의미가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이라고 합니다. 처음, 즉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매력적인 직업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는 어렵고 힘든 업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설계가 상당부분 분리발주 되지 않고, 과다경쟁 등으로 용역금액은 낮아지고 그 마저 용역대금 수금은 어려워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업무량은 예전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각종 인증제도 승인 등으로 많아져 업무량은 많고, 이에 비해 급여가 낮은 직종으로 인식되어 버린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납니다.

다행히도 설계업역의 회귀율이라고 할까요, 전기설계업역에 종사했다가 다른 업역 내지 전기관련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였던 사람이 다시 전기설계업역으로 되돌아오는 비율이 8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전기설계에 종사하였던 기술자가 할 줄 아는 것이 전기설계 밖에 없으니까 되돌아온다고도 할 수 있지만, 80%라는 수치는 우리 설계업역에 많은 매력적이 있지 않고서는 이를 수 없는 통계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설계업역은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설계업역에 종사하였던 사람들의 회귀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좋은 마력이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만 된다면 설계업역이 지속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완전한 분리발주가 실현되고 용역대금의 수급체계가 제도적으로 형성된다면, 업체의 재정 건전성은 향상될 것이고 이를 통해 업체에서는 적절한 임금을 업역 종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좋은 대우는 우수한 인력을 모이게 하는 업역발전의 상관 고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설계협의회 의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에 따라 우리 전기설계업역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Q** 의장님의 인생의 좌우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과거의 더욱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며, 조금 더 멀리 보려고 노력합니다. 현실에 지쳐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만족한다면, 커다란 원안의 작은 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밑만 보거나 멀리 보지 못하면 눈앞에 작은 원이 그저 정해진 현실이라고 착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멀리 더 크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큰 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작은 관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의 이러한 이유로 좌우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인생의 철학으로 인무원려 난성대업(人無遠慮, 難成大業), “멀리 앞을 보지 못하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말을 항상 마음 속에 깊이 되새기며 다짐하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인들도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간의 업역을 존중하고 이해하여, 더 큰 발걸음을 위해 한 걸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